

조선대, 글로벌 대학 탈락...혁신·변화 계기 만들어야

명예교수회·총동문회 등 책임 거론 속 "갈등보다 위기를 기회로" "반짝 동요 대신 혁신 통해 글로벌 대학·성장 '두 토끼' 잡아야"

조선대학교가 글로벌 대학 선정에서 탈락하자 자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총동창회, 명예교수회 등에서 글로벌 대학 30사업 탈락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캠퍼스에는 책임론을 거론하는 현수막도 걸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Glocal, Global+Local)대학 30' 사업은 수도권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 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순천대가

지난해 최종 지정됐고 올해 전남대와 목포대가 예비 대학에 선정됐다.

조선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차 관문인 예비 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다.

악재가 겹치자 조선대학교 총동창회는 최근 '모교 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동창회는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 탈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총장의 즉각 사퇴, 구성원의 자각과 성찰 등 3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를 통해 비상대책위

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자협은 조선대학교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4개 단위로 구성돼 있는 대학 기구다.

조선대 명예교수 협의회도 "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평가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수모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전 집행부는 글로벌대학 탈락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학이 지역에 무엇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하고 급격한 지방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문·전 구성원·지자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립대학의 사명과 의무를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근원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대학 탈락의 위기를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대 민주동우회 전임 간부는 "조선대가 글로벌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사태를 냉철하게 되짚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책임자들은 문책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방만한 학과·통폐합 문제 등 근본적인 개혁의제를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요구했던 일부 교수가 구성원에게 집단적으로 매도당하고 형사 피고인으로 몰리는 행태가 조선대의 현실"이라면서 "교수를 비롯한 전교 직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조선대의 개혁과 글로벌 대학 선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사회는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부의 난맥상을 정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과대학의 한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자성과 성찰"이라면서 "특히 법인 이사회는 대학발전을 위한 철학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총장 선거 이후 되풀이되는 특정 구성원들에 대한 보은인사 등 왜곡된 행태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대학 행정이 절실하다"며 "조선대는 늘 외부적인 충격에 반짝 동요하다 결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돼 왔다. 이번 글로벌 대학 탈락의 위기를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성원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대는 이번 글로벌 대학 공모에서 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 등 지역 4개 대학과 연합대학을 꾸려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나 예비대학 선정에서 탈락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인 8일 광주시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장이 많은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여순사건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개정 시급

오늘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신고 기한 확대 등 다룰 듯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신고기한을 늘리는 특별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9일 오후 순천대 파루홀에서 열리는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제문 등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맡은 임승본 순천대 10·19연구소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24일 기준으로 총 7465건의 신고가 접수돼 4601(61.6%)건이 조사나 심의 중이다. 전남도의 실무위원회에서는 2741건(36.7%)을 심의 완료해 여순위원회에 송부했으며 이 중 566건(7.6%)을 결정했고, 2175건(29%)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런 추세라면 조사에만 1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별법에는 내년 4월 5일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진상조사서를 작성하

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수집 분석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추가 기간연장 여지를 남겨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조직체계의 문제로 조사가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임 연구원은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조사를 위해 상임위원을 둘 것과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권한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자로 나선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배·보상법위와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제정에 관해'라는 토론문에서 특별법 개정시 담겨야 할 보상 관련 사항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기본적으로 제주 4·3특별법과 같은 맥락으로 배·보상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순사건 관련 일반 민사시효도 특별법의 발효시까지 정지된다"면서 "특별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 포함)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고의·상습 체불 특별근로감독' 광주 1곳 포함

광주에서 건물관리(경비·정소) 인력을 공급하면서 용역 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의·상습 체불 업체가 전국단위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전국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사

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170여명의 직원을 둔 광주의 한 인력공급업체가 대상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억 3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이 업체는 임금 체불은 물론 직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또 이를 실소유주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신고가 지

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밖에도 서울(음식점업, 물류업 등 2곳), 부산(가스충전업 1곳), 대구(요양병원 2곳), 경기도(건설업 1곳) 6곳의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남구 양림동 투어 인증하고 '양림패스' 받자

광주 남구, 12월까지 운영

광주시 남구가 지역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림을 담다' 여행 인증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림동 내의 미술관과 기념관, 문화·예술 행사 등 관광 명소 3곳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게시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

하는 것이다. 참여자는 양림 거점예술여행센터에서 1인당 기념사진 1장 무료인쇄 서비스와 액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공방과 카페, 음식점 등 75곳에서 10% 할인받을 수 있는 '양림패스'도 제공된다. 참여 희망자는 SNS에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해시태그와 함께 여행 후기를 올리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림 거점예술여행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